

재활심리연구 발행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학술지 [재활심리연구] (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행의 기획, 논문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행 목적)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1. 한국재활심리의 발전에 기여
2. 재활심리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 촉진
3. 한국재활심리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확보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최종 게재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4. 게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3.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재활심리분야 전문가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제7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또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결과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문초록 감수위원) 영문초록 감수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일체를 처리한다.

제11조(투고 논문 작성 지침 및 제출)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및 제출은 [재활심리연구] 발행규정 및 투고규정을 따른다.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5권 제3호 부터 적용된다.

재활심리연구 발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재활심리학회의 학회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모집분야)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주관 하에 한국재활심리학회의 목적에 맞는 논문을 모집한다.

제3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적어도 1인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투고절차)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투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게재신청서, 연구윤리서약서, 연구자 전원 연구윤리교육이수증, 저작권 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 결과 각각 1부와 논문 파일 1개 제출
2. 심사비 입금
3. 논문심사(심사위원 3인 이상)
4.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
5. 심사절차
6. 출판된 후 게재료 납부
7. 별쇄본 및 『재활심리연구』 수령

제5조 (심사기한 및 심사절차) 본 학회지의 심사 및 게재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된다. 본 학술지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주제 및 논문체계의 적합성 심사와 표절을 심사를 실시한다. 체계적합성 심사에서는 논문이 본 학회지 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주제적합성 심사에서는 서론에 연구 필요성과 기대성과, 논의에 재활심리학 연구와 실제에 관련된 시사점, 참고문헌에 심리과학분야 학술지 논문 포함 수준 등을 검토한다. 표절을 심사는 copykiller, copykiller campus, turnitin 등 편집국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표절검사 결과에서 표절률이 15% 이하인지를 검토한다.
2.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결정 전에 해촉 가능성에 대해 2회 이상 공지해야 한다. 해촉 후 7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해촉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1차 심사의 경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결과 종합판정에 의거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회신한다.
6.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한 종합판정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을 참고로 하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심사결과가 「게재」일 경우, 출판 작업에 들어간다.
 - 2) 심사의견이 「수정후 게재」일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서를 반영한 수정 논문과 수정보고내용을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투고자가 제출기한을 넘겼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기간내 논문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3) 심사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반송 후 다음 호의 도착분에 한해서 다시 심사절차를 거친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호에 투고되지 않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 4) 심사의견이 「게재불가」의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8. 1차 심사의견이 「수정후 게재」의 수정논문과 수정보고내용을 심사위원에게 보내면, 심사위원은 10일 이내에 2차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9. 「수정후 게재」의 논문에 대한 2차 심사의견의 결과가 「게재」일 경우, 출판 작업에 들어가고, 「수정후 게재」일 경우, 3차 심사를 진행한다.

제6조(저자 정보 관리)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2.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7조(게재 편수)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많을 경우에도 심사는 진행하며 규정에 맞는 모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심사료) 논문 투고시 심사료는 편당 90,000원으로 한다. 단, 수정후 재심 판정 후 재심사를 받을 경우 편당 60,000원으로 한다.

제9조(게재료)

1. 논문 기본 게재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50,000원으로 한다
2. 논문 분량이 20장이 넘을 경우 한 쪽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3. 별쇄본은 15부씩 제공한다.

제10조(저작권) 한국재활심리학회의 학술지인 재활심리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재활심리학회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물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논문 PDF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자가 책임진다.

제11조(논문처리 현황에 대한 명시)

1. 게재되는 논문처리 현황 (원고제출일, 수정제출일, 게재확정일)에 대해 해당년도, 월, 일 순으로 명시를 한다.
2. 원고제출일은 투고한 날로, 수정제출일은 1차 수정보고내용을 제출한 날로, 게재확정일은 최종 수정 논문을 제출한 날로 한다.

제12조(발행 일정)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되며 증판 발행할 수 있다. 단, 증판 발행시 증판 발행 이전 횟수로 되돌릴 수 없다.

호 수	발 행 일	논문접수 마감일
매년 1호	3월 30일	12월 30일
매년 2호	6월 30일	3월 30일
매년 3호	9월 30일	6월 30일
매년 4호	12월 30일	9월 30일

제13조(운영세칙)

1.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국재활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3. 발행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받지 않는다.
4. 기타사항은 한국재활심리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16권 제1호 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1권 제1호 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2권 제1호 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3권 제1호 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5권 제2호 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5권 제3호 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6권 제1호 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7권 제2호 부터 적용된다.

재활심리연구 투고규정

제1조(재활심리연구 투고 규정)

본 학회의 학술지인 「재활심리연구」의 투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 학술지의 논문작성지침「Publication Manua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PA」을 따른다.

제2조(일반사항)

1. 논문접수 및 심사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글 2002 이상 프로그램에서 편집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3.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와 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Jams)에 등록한다.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모두 삭제한 원고를 제출한다. 단, 논문 투고신청서에는 연구자의 인적사항(공동연구자 모두 포함 및 교신저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논문유형을 표시한다. 또한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4.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학위수여로부터 2년 이내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5.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꼭 필요한 경우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한자 혹은 영문을 표기한다.
6.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한다. 최종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한다. 인적사항을 기입할 때는 다음을 참고한다.
 - 1) 연구지원기관은 *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 2)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소속을 표기하고 영문이름은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Hong, Gildong

- 3) 공동연구의 경우는 모든 공동저자의 이름, 소속, 직위를 논문 첫 쪽 각주로 밝힌다.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명기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이름, 소속, 직위 및 이메일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밝힌다.

예) 공동저자: 김철수(제1저자), 한국상담센터 소장, 박한국, 한국대학교 재활심리학과 박사과정, 김한별, 한국고등학교 3학년 학생

예)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길동, 한국대학교 재활심리학과, (12345) 서울시 도봉구 쌍문대로 123, Tel : 12-345-6789, E-mail : gildong@abc.ac.kr

- 4)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논문의 제1저자(책임 연구자)로 간주하며,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작성자, 지도교수 순으로 이름을 게재한다.
- 5) 학위 논문일 경우는 투고원고 각주에 석사, 박사논문이라고 기재한다.
예) * 본 연구는 ○○○(20○○년)의 ○○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6) 저자의 국문소속과 영문소속을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7) 논문 제목 및 저자의 이름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하고, 외국인은 원어 그대로 쓴다.
예) 국문 : 홍길동 / 영문 : Hong, Gildong
7. 모든 연구논문은 120~150단어(600자) 이내의 본문 앞 초록과 참고문헌 뒤 초록을 한 문단으로 작성해야 하며, 초록 다음에 3~5개의 주요어(key words)를 제시한다. 본문 앞 초록은 본문과 동일한 언어를, 참고문헌 뒤 초록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8. 1) 원고순서는 제목,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하되 A4용지 20매 내외로 하며 별지의 <편집세부사항>을 따른다.
2) 본문의 형식은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하고, 특히 사례연구일 경우 회기별 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회기별 그림은 본문 속에 포함시킨다.
9. 각주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문장 끝에 각주번호를 달아 해당 쪽 하단에 내용을 적도록 하며 5행을 넘지 않도록 작성한다.
10. 그림과 표는 그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리며 번호, 제목, 설명을 붙인다.
1) 표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며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되 도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진한 선으로 하고 가장자리 세로줄을 굵지 않는다.
2)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그림 1 로 표시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에 적는다. 본문에서의 표와 그림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 그림 1에서..., 표 1에서...)
11. 본문 중에 통계검증 결과를 제시할 때 통계약어는 이탤릭체로 제시한다.
예) *t*, *F*, *M*, *df*, *p*, *B*, *SE*, α , β 등
12. 논문 중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은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작성 원칙>을 따른다.
13. 한 연구자가 한 호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는 최대 2편이며, 그 중 1편은 반드시 주저자(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14. 최종원고의 편집은 투고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제출 후 원고교정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단, 투고자가 편집비용을 지불하고, 출판사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1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편집세부사항)

1. 아래의 편집세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2. 편집세부사항은 한글 2002를 기준을 한다.
3. 용지종류 : A4(210mm X 297mm)
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단 간격 5.0mm)
4. 여백주기 : 용지방향을 좁게(세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표, 그림, 부록의 경우는 가로 사용 가능함)
위 35, 아래 35, 좌 30, 우 30, 머리말 13, 꼬리말 13, 제본 0
5. 글자체 : 장평 95%, 글자간격 -10, 줄간격 160%, 신명조체를 원칙으로 한다.
6. 내용편집 : 세부형식은 원고작성 보기를 참고한다.
 - (1) 제목 : 신명조, 20, 진하게, 가운데, 문단위 40
 - (2) 저자 : 신명조, 10, 진하게, 가운데, 문단위 20
 - (3) 소속 : 신명조, 9, 진하게, 가운데, 문단위 10
 - (4) 국문초록 본문 :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 혼합, 여백 오른쪽 30, 왼쪽 30
 - (5) 국문초록 주요어 : 중고딕, 9, 진하게
 - (6) 본문 내용 : 신명조, 10, 혼합, 들여쓰기 8
 - (7) 본문 제목 1단계(방법, '결과', '논의' 제목) : 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 (8) 본문 제목 2단계 : 중고딕 11, 진하게, 혼합
 - (9) 본문 제목 3단계 : 신명조, 10, 혼합, 들여쓰기 8
 - (10) 참고문헌 제목 : 신명조, 11, 진하게, 가운데
 - (11) 참고문헌 본문 : 신명조, 9, 혼합, 내어쓰기 20
 - (12) 영문초록 제목 : 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 문단위 40
 - (13) 영문초록 저자 : 신명조, 10, 가운데, 문단위 20
 - (14) 영문초록 저자소속 : 신명조, 9, 가운데, 문단위 10
 - (15) 영문초록 본문 : (두 줄 띄우고 시작) 신명조, 9, 혼합, 여백 오른쪽 30, 왼쪽 30
 - (16) Key Word : 중고딕, 9, 혼합, 기울기
 - (17) 부록제목 : 중고딕 10, 혼합, 가운데
 - (18) 부록내용 : 신명조, 9, 혼합
 - (19) 각 주 : 신명조, 9, 혼합, 줄간격 130%
7. 표 : 표는 세로 선은 긋지 않고, 안쪽 선은 가는 선(0.12mm)으로 하고 표의 맨 위와 아래 가로선은 진한 선(0.25mm)으로 한다.
 - (1) 제목 : 중고딕, 9, 혼합, 진하게
 - (2) 내용 : 신명조, 9, 혼합
8. 그림 : 그림은 간단하게 제시한다.
 - (1) 제목 : 중고딕, 9, 혼합, 진하게

(2) 내용 : 가운데

제4조(인용방법)

1. 본문 중 문헌의 인용은 괄호 안에 제시 경우와 본문 속에 참조하는 것으로 나뉘며, 저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인용문헌이 논문인 경우와 단행본인 경우에 따라서 인용 방법을 달리한다. 논문과 단행본은 저자이름과 발행연도를 기재한다.
2. 저자가 1-2인 경우
괄호 안에 제시 - (이영희, 김철수, 2014), (Huston & Crouter, 2014)
본문 속에 참조 - 이영희와 김철수(2014)는..., Huston과 Crouter(2014)는...
3.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1) 첫 번째 인용
괄호 안에 제시 : (최은영, 박중규, 김미래, 2002), (Demo, Allen, & Fine, 2000)
본문 속에 참조 : 최은영, 박중규와 김미래(2002)는..., Demo, Allen과(와) Fine(2000)은...
 - (2) 두 번째 이후 인용
괄호 안에 제시 : (홍길동 외, 2012), (Demo et al., 2000)
본문 속에 참조 : 홍길동 등(2012)...., Demo 등(2000)은...
 - (3)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
한국인 제1저자 이름의 가나다순, 외국인 제1저자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며 각각의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4.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 (1) 첫 번째 인용 : 공저자 6인까지 제시하거나 처음 사람만 기재해도 됨
 - (2) 두 번째 이후 인용: 3인 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제5조(참고문헌)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참고문헌은 국문서, 동양서, 서양서순으로 적는다.
3. 참고문헌은 한국인 저자이름의 가나다순, 외국인 저자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4. 일본어 또는 기타 외국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5. 국문의 경우 단행본(단행본명과 권), 정기간행물(간행물명), 학위논문(논문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6. 영문의 경우 단행본(단행본명과 권), 정기간행물(간행물명), 학위논문(논문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7.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이나 서명은 첫 단어의 첫 번째 글자(spell)만 대문자로 쓰고, 정기간행물(Journal)은 매 단어마다 첫 글자(spell)를 대문자로 쓴다.
8.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경우에는 맨 뒤에 페이지를 명기하며 이때 숫자만 표기한다.

9.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저자, 논문명, 웹주소의 순으로 한다.

10. 참고문헌 작성 시 사용되는 기호

- (1) 내용 : edition - 기호 : ed.
- (2) 내용 : Editor(s)- 기호 : Ed.(Eds.)
- (3) 내용 : second edition - 기호 : 2nd ed.
- (4) 내용 : revised edition - 기호 : rev. ed.

11. 참고문헌 작성예시

- (1) 단행본 : 저자, 발행년도, 서명, 발행처, 소재지, 발행처, 참고한 페이지를 제시한다.
외국 단행본의 경우 소재지에 국가명(미국의 경우는 주이름을 약자로 표기함)과 도시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시) 임호찬 (2008). **재활심리학 개론**. 서울: 서현사.

Landreth, G. L. (2012).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New York, NY: Taylor & Francis Group, LLC.

- (2) 학술지: 저자, 발행년도, 제목, 잡지명, 권수(호수), 발행처, 인용쪽수를 표시한다.

예시) 김성철, 김홍근 (2014). 우울장애에서 인지기능의 결손: 짝과제를 사용한 검증. **재활심리연구**, 21(2), 151-169.

Richards, D., Timulak, L., & Hevey, D. (2013). A comparison of two online cognitive-behavioural interventions for symptoms of depression in a student population: The role of therapist responsivenes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13(3), 184-193.

- (3) 학위논문: 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을 제시한다. 대학명에 주이름(도시이름)이 있으면 주이름(도시이름)을 기입하지 않는다.

예시) 박재현 (2013). **척수장애인의 심리적응 척도 개발 및 적용**.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번역서: 번역서를 제시한다.

예시) Gillen, G. (2011). 임상가를 위한 인지과 지각재활[*Cognitive and perceptual rehabilitation*]. (전병진, 김영란, 김형민 역). 서울: 현문사(원전은 1998년 출판).

- (5) 편저(Eds.)를 참고한 경우는 편저자와 함께 쪽수도 표기한다.

예시) 전용준 (2011). 신체질환과 중독. 조근호, 권도훈, 김대진, 김선민, 김한오 등 편. **중독재활총론** (pp. 221-240). 서울: 학지사.

Selzer, M., Clarke, S., Cohen, L., Kwakkel, G., & Miller, R. (Eds.). (2014). *Textbook of neural repair and rehabili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6) 학술대회 발표 논문

1) 출판된 발표자료집, 심포지엄에 기고된 출판물, 편집된 서적의 논문이나 장

예시) 오대아, 전미현, 정미경, 정재희, 금명자 (2011). 교정기관 심리 재활프로그램의 요구.
한국심리학회 (편).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p. 237). 서울: 한국심리학회.

Deci, E. L., &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Dienstbier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 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2)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발표자료집

예시) Cynx, J., Williams, H., & Nottebohm, F. (1992). Hemispheric differences in avian song discrimin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89, 1372-1375.

(7)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예시) 한겨레신문 (2014). 장애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적 함께 만들어요. 2014. 12. 3. 27면.

(8) 인터넷 자료

예시) 한국재활심리학회. 000에 대한 보고서. <http://www.karp.co.kr>

(9) 인터넷 다운로드 자료

예시) 류현수 (2014).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위한 ‘어린이 낮병동’.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hwpr/12881359>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5권 제2호 부터 적용된다.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활심리연구」제27권 제2호 부터 적용된다.

논문 제출 점검표

※ 투고논문이 「재활심리연구」 원고작성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추가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호에 게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작성규정 관련 사항	예	아니 오	해당 없음
제 목	국문 및 영문 제목이 각각 정확하고 서로 일치합니까?			
저자 이름	국문 및 영문 저자명이 정확합니까?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작성했습니까?			
저자 표기	복수 저자일 경우, 연구 기여도 순으로 작성했습니까?			
	1저자를 가장 앞에 표기하고 교신저자를 가장 뒤에 표기하였습니까?			
사사 표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학위논문을 수정한 논문임을 명시했습니까?			
저자 소속/ 직급	모든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급(직위)이 각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교신저자를 표시하고 이름, 소속, 직위 및 이메일 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하였습니까? 규정에 맞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가 있다면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하였습니까?			
초 록	120~150단어(600자) 이내의 초록의 분량이 적절하며, 내용(연구 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의의 포함)을 간략하고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까? 글자모양 문단모양 등을 학회지의 편집규정에 맞게 표기하였습니까?			
핵심 단어	국문 및 영문 핵심 단어가 3~5단어로 동일하게 각 초록의 좌측 하단에 제시되어 있습니까?			
분 량	원고 전체 분량이 20매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용 지	용지 종류와 여백 주기는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2단 논문투고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까?			
내용 편집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쪽번호 달기 등이 규정에 맞게 편집되어 있으며 오탈자가 없음을 확인했습니까?			
본문 제목	본문의 제목 1단계, 2단계, 3단계가 편집규정에 맞게 적절한 글자모양, 크기, 문단모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표/그림	표 및 그림은 인쇄해도 선명하게 구분되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목과 번호 전개의 표기형식이 맞습니까?			
인 용	본문 인용문의 출처 표기형식이 원고작성 규정에 맞습니까?			
	참고문헌이 누락되거나,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참고문헌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참고 문헌	국문, 영문 표기 순서 및 자료 성격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재활심리연구 연구윤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재활심리학회 학술지 재활심리연구 “연구윤리 지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재활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재활심리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재활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재활심리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제정 및 심의) 한국재활심리학회 학술윤리위원회에서는 본 지침을 제정 및 심의한다.

제 2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5.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에는 연구자는 논문게재신청서에 연구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6.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투고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자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조각 출판”이란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자료 중 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를 말한다.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다른 사람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9.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의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범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투고한 논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1. 표절을 심사는 copykiller, copykiller campus, turnitin 등 편집국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표절검사 표절률이 15% 이하를 상회하는 논문

2. 본회 투고규정의 제출원고 형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맞춤법 및 번역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표절 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논문
3. 투고자 본인의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별도 표기 없이 투고한 논문. 다만 학위논문을 요약했다는 내용의 주석이나 본문 각주가 표기된 경우는 예외로 함
4. 가족(부모, 자녀, 부부 등)이 공저한 논문. 다만 가족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5. 다른 사람의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

제8조(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즉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각출판 등을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의 개방성)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에는 연구자는 논문게재신청서에 연구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2.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기여도 배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3. 연구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주요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는 제1저자이어야 하고, 논문작성을 책임지고 연구진행, 교신을 진행하는 연구자는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기타 어느 분야의 역할을 담당한 연구자를 공동저자로 나누어 공평하게 기여도를 배분해야 한다.

제12조(연구대상자)

1.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6) 비밀 보장의 한계
 - 7)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1) 실험 처치의 본질
 -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 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3조(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재활심리연구”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저야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

- 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1)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5.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7.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8.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9.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자, 편집요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10.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11.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12. 새로운 편집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편집위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제 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4조(심사절차 준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심사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공정한 심사 평가)

1. 의뢰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저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제16조(심사위원의 책임)

1.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2.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조작, 표절 등의 비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17조(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5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위조, 변조,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학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19조(학술윤리위원회 조직 및 심의)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학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두고, 연구 부정행위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해 세부 심의와 결정을 한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 관련된 세부 사항 및 절차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1.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술윤리위원회에 있다.
2.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는 학술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술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본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심의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심의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학술윤리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정)

1.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은 학술윤리위원회에서 맡는다.
2.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당해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은 심의·결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4. 연구 부정행위 결정 기한은 6개월로 한다. 즉, 연구 부정행위 제보나 본회 자체 발견 이후 예비조사, 위원회 소집 후 본 심의·결정까지 기한을 말한다. 결정에 대한 피의자의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6개월 검증시효기간 안에 완료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게재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게재를 보류한다.

제24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1. 연구부정행위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연구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정한다.

제25조(연구윤리 검증 절차)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에 대한 심의는 학술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학술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학술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

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학술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학술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26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학술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학술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3)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 6) 논문 투고자의 학회원 자격 3년간 정지
 - 7) 논문 투고자에 대한 경고 및 주의 조치
4. 연구 부정행위로 최종판정을 받은 논문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연구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연구자의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과 동시에 조속히 논문게재를 취소한다. 또한,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한다.
6.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또는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학회의 역할과 책임)

1.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때에는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학회에서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